

한일정상회담(08.04.21) 주요 내용

2009.10.22

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도쿄를 공식 방문하여 후쿠다 야스오(福田康夫)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·일 FTA/EPA가 양국의 경제관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.

□ 한일정상회담 개최

-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도쿄를 공식 방문하여 후쿠다 야스오(福田康夫)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짐 (2008.04.21)
- 한·일 FTA/EPA 협정의 체결교섭 재개를 위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에 대해 협의

□ 키워드

- 한일 신시대 개척

□ 협의 내용

- 인적 교류의 확대 및 강화
 - 한·일간 취업관광사증제도(Working Holiday Visa Program)의 이용자 확대를 위한 조치, 각각 참가자 상한선을 2009년에는 현재의 2배가 되는 연간 7,200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, 2012년까지 10,000명으로 확대
 - 양국 정부가 향후 3년간 새로이 유학생 1,500명을 지원하는 「한·일 대학생교류사업」 개시에 합의, 그 중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유학생의 경우, 소재산업, 부품산업분야 등과 관련된 학부로의

유학에 중점

- 양국 국민의 공통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2기 한·일역사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
- 이명박 대통령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위해 일본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, 이에 대해 후쿠다 총리는 국회 등에서의 논의 향방에 계속 노력한다고 응답

○ 경제분야 협력의 강화

- 한일·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이 실시하는 비즈니스교류촉진사업 및 지역간교류협력사업을 평가하고 활성화하기로 합의
- 한일 양국 경제계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‘한일 Business Summit Roundtable’ 설치를 환영
- 한일 자유무역협정(FTA)/경제연계협정(EPA)이 양국의 경제관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, 동 협정의 체결교섭의 재개를 위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6월중 개최 합의
-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에 「부품·소재전용공단」의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명, 양국 정상은 부품·소재산업 분야에 있어서 산업간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양국 관계 기관간에 사절단 파견, 전시상담회 등의 실시검토를 합의

○ 북한문제에 대한 협력

- 2007년 10월 3일 6자회담에서 합의된 “제2단계조치”가 조기에 완료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, 한반도 비핵화, 일·북 관계 및 미·북관계의 정상화 등을 명기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협력 합의

□ 성과

- 한일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FTA(자유무역협정)와 EPA(경제연계협정)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6월에 개최하고 부품, 소재 산업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양국 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
- 지난 2005년 6월 이후 중단됐던 외교 복원, 무역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균형 있는 경제 협력체제 구축, 6자회담 공동성명의 완전 이행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력, 에너지, 환경 분야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대를 포함한 정상외교 활성화, 대북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제를 협의

<참고자료>

외교통상부(www.mofat.go.kr)

“이 대통령, 실용외교 1라운드 마치고 귀국” (업코리아 08.04.22), “韓日정상회담 양국관계 업그레이드 평가”(연합뉴스 08.04.23) 등 국내 주요언론보도 내용 종합